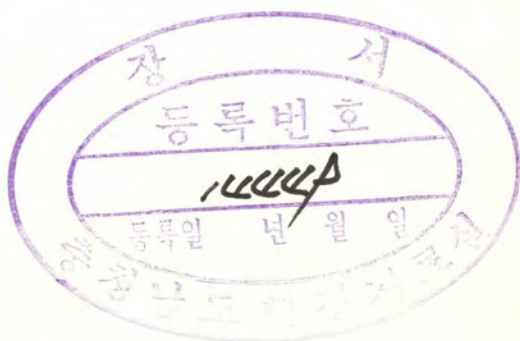


충남의
일과
맥

충청남도

0

5



충남의 얼과 맥

충청남도

발 간 사

일반적으로 충남정신은 충효·절의·선비·예의·개척의 다섯가지로 요약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바른 도리를 굳게 지키고 선비같은 기개로 학문에 힘쓰며, 공손한 몸가짐과 나아갈 바를 헤쳐 나가는 용기를 갖는 것으로, 이는 우리 민족의 일반적 정서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충남정신을 형성케한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충남정신은 고대 동방문화를 주도했던 민족정신의 뿌리인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도가 국토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합니다.

국토의 중심이요, 민족정신의 중심으로 충청남도가 기동역할

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충남의 얼을 찾아 그 정신을 도민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발간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충남정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한 선현들은 어떤 분이었으며, 우리가 본 받아 새롭게 펼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가치관의 전도와 도덕성 상실로 갈수록 혼탁해 지는 이 시대에 인간성 회복의 불을 밝히는 등대역할을 하게되고, 우리의 젖줄인 비단물결 금강과 같이 맑고 깨끗한 충남인의 정신을 자손만대에 전하는 전령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발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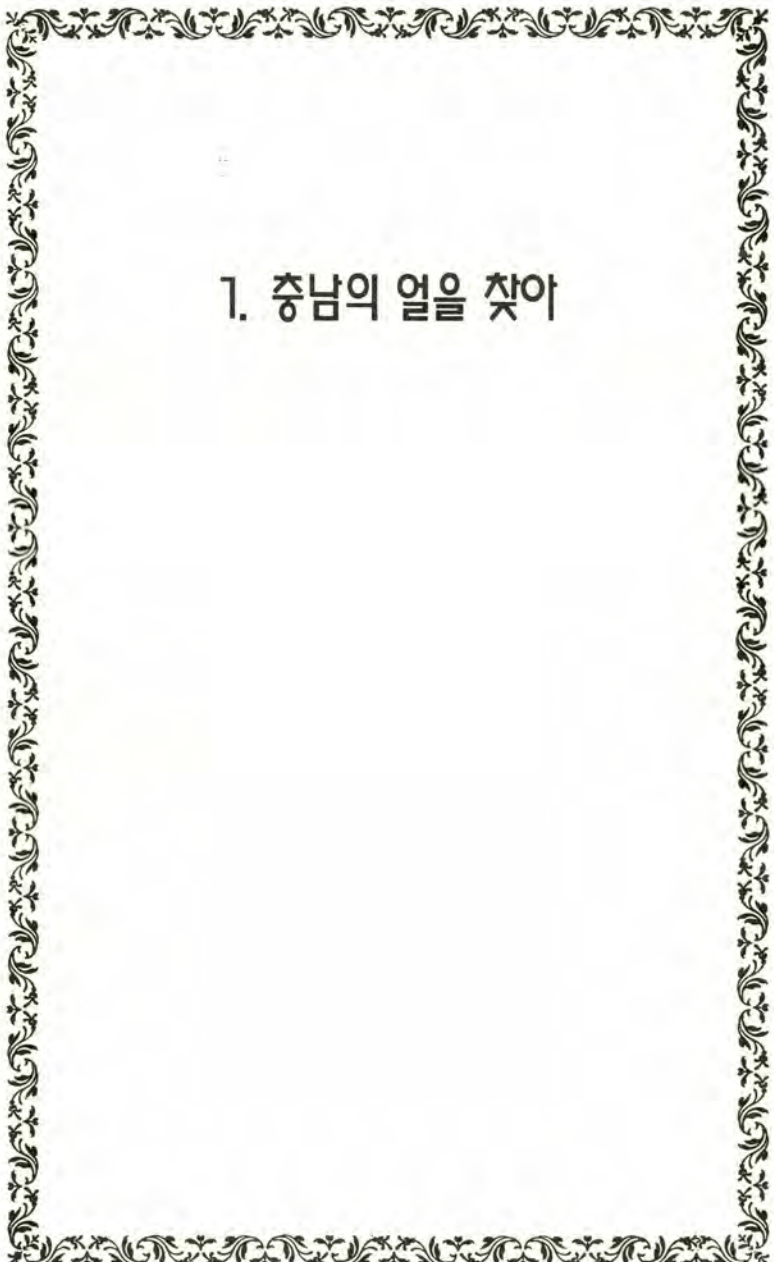
1996. 8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차 례

1. 충남의 얼을 찾아	7
2. 우리 고장은 어떤 곳인가?	13
■ 지리적 여건	16
■ 문화적 여건	18
■ 역사적 환경	20
3. 충남정신의 실체	23
■ 민족정신의 원류	27
■ 백제사상의 계승	29
■ 근대윤리의 기본	31
4. 충남의 5대정신	33
■ 충효정신	37
■ 절의정신	47
■ 선비정신	57
■ 예의정신	69
■ 개척정신	77

5. 충남을 빛낸 명인들	85
■ 삼국시대	88
■ 고려시대	90
■ 조선시대	92
■ 최 근 세	102
6. 충남정신의 발양	107
■ 의 의	109
■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111
■ 내가 지녀야 할 도리	113
■ 가정은 화목하게	116
■ 고장은 살기 좋게	119
■ 사회는 질서있게	122
7. 맺는말	125
편집후기	131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and scrollwork pattern, enclosing the central text.

1. 충남의 얼을 찾아

충남의 일을 찾아

우리나라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옛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알려져 온 것처럼 사람 살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후한 인심과 순박한 기질을 갖고 있으며 그 정신 또한 맑고 깨끗하여 공명 정대한 기상과 높은 지조를 가지고 살아왔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터잡고 살아온 곳이며, 백제가 이 땅에 도읍한 때부터 충효정신을 근간으로 군의신충(君義臣忠)과 부자자효(父慈子孝)를 실천하면서 번성하였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 화북 지방까지 그 명성을 떨친 동방의 중심이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 선비와 무인이 많이 배출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며, 이는 바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충남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절의존중 사상과 결백정신이 뚜렷하였으니 의(義)를 보면 용감하였고 악(惡)과는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난을 당하면 수많은 의병이 자진 참전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관(官)에 나아가서는 청백리(淸白吏)로서 사리(私利)를 멀리하고 공의(公義)를 존중하였다. 이러한 깨끗한 삶의 축적이 바로 충남의 선비정신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근원을 따라가보면 충남정신의 뿌리는 백제정신에서 유래되었고 백제정신은 고조선의 예의(禮義)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예(禮)는 가정의 윤리요 의(義)는 국가의 윤리로서 이는 동양정신의 근본이다.

이러한 예의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시민생활을 위한 자율성과 질서의식」이 된다.

충남의 정신 중에서도 개척정신은 또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비조(飛鳥·아스카)문화가 바로 백제문화에서 전수된 것이고, 서요(西遼)에 진평군(晉平郡)이라는 식민지를 두었던 것만 보아도 백제인의 기상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개척적이었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오늘날의 서해안개발은 백제의 개척정신을 되살리는 것이며, 향후 대륙으로 진출하여 백제의 영광

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면면히 내려오는 백제정신의 맥을 잡고 충남의 얼을
찾아 이를 갈고 닦아 나갈 때 세계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
도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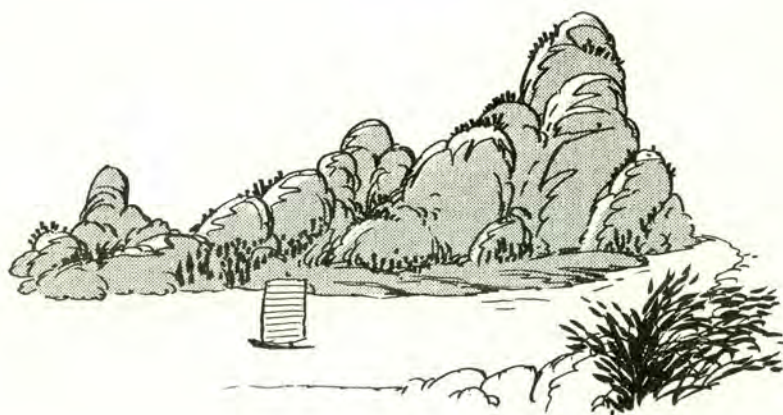
우리가 충남의 얼과 맥을 찾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우리 교장은 어떤 곳인가?

- * 지리적 여건
- * 문화적 여건
- * 역사적 환경

우리 고장은 어떤 곳인가?



천하 명산 계룡산이 벼슬엿은 용모양으로 버티어 섰고 비단 강물 굽이굽이 허리를 휘감아도는 우리 충남이야말로 보이는 산천 그 자체는 물론이고 풍수상으로 보아도 살기좋은 명당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찬연한 백제문화를 이어 받아 근세 예학문화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문화의 정수리를 지켜왔으니, 5천년 한민족의 역사를 관통하는 혈맥이 이 땅에 흐르고 있음이 아닌가.

지리적 여건

우리나라의 중부권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중한의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 충청도편」에 보면

「남쪽의 반은 차령산맥 남쪽에 위치하여 전라도와 가깝고, 북쪽의 반은 차령산맥 북쪽에 위치하여 경기도와 이웃하고 있다.

산천이 험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경치 좋고 아름다우며 서울과도 가까운 위치여서 옛부터 서울의 세가(世家)들이 모여들어 전답과 주택을 마련하여 근거지로 삼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서울과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가장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였다.

사실상 충청도는 북쪽의 중국이나 남쪽의 일본으로부터 직

접적인 피해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지방에 비하여 큰 산과 큰 강이 적은 편이어서 홍수나 기근 등의 자연적인 재해도 적어 참으로 살기좋은 곳이다.

이 천연적 여건이 바로 심성 바른 충청인을 길러온 모태였다.

우리 고장은 어떤 곳인가?

문화적 여건

1971년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되었을 때 세계 고고학계는 그 찬란한 백제문화의 실체를 보고 경악하였다.

1500여년 전 살아 숨쉬던 백제가 그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내쉬기 시작한 숨소리에 흥분을 금치 못한 것이다.

그로부터 20여년,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금동대향로는 또다시 세계인을 놀라게 하면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처럼 우리 고장은 고대 동방문화를 주도했던 백제문화의 본고장이다. 두말할 나위없이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흥망성쇠를 지켜 본 왕도로 백제역사의 자취가 고스란히 간직된 문화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신라의 삼국통일로 백제문화가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도 그 문화적 속성은 유지되어 왔

다.

현재 남아있는 사찰과 불교미술이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불교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우리 고장의 문화는 일대 중흥기를 맞았다.

오래 충청도 사람이면 양반이라고 하듯이 예학의 본고장으로 정통 유교문화가 꽃핀 것이다.

수많은 향교와 서원, 관아건물 등의 문화재는 근세 충청문화의 르네상스를 대변해 준다.

이처럼 우리 고장은 각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의 물줄기를 따라 발전해 왔다.

충남의 얼은 곧 이들 문화의 흐름 속에 깃들어 있으며 오늘날의 충남정신도 여기서 배태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 고장은 어떤 곳인가?

역사적 환경

공주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지, 부여 송국리 선사 취락지 등 선사유적이 많은 것은 우리 도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일찍부터 역사적 요충지였음을 말해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일부로서 많은 국읍(國邑)이 있었다. 서기 475년 문주왕이 백제의 서울을 웅진(공주)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우리 고장은 명실공히 동방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로부터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기까지 200여년간, 충남은 실로 고대의 문화와 사상을 주도한 문명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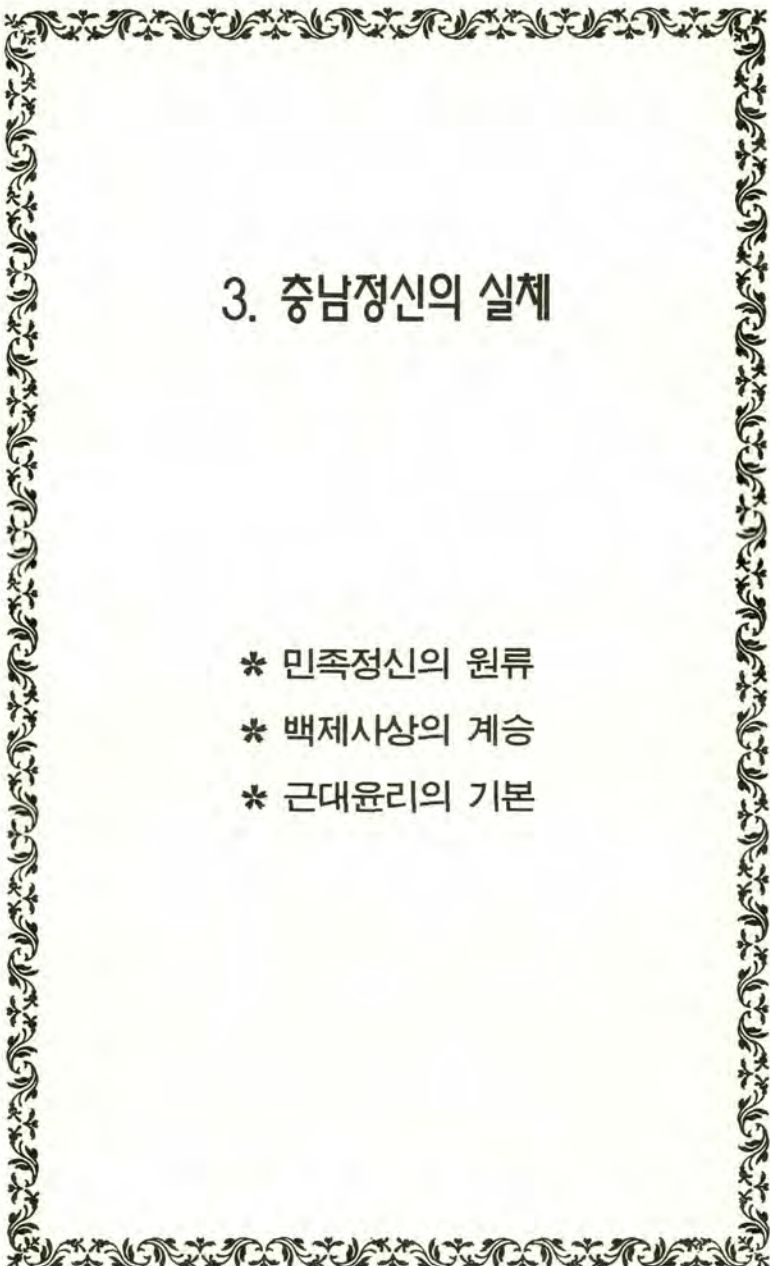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친히 개태사를 창건토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문화 융성의 시발점이었다.

충청도라는 명칭이 처음 붙게 된 것도 고려 때였다. 이는 경기도까지 포함한 넓은 면적이었는데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도 중심에 해당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계룡산 기슭에 도읍을 정하려고 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지금 신도(新都)안에 계룡대가 자리잡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 후로 많은 관리들과 선비들이 우리 도에 정착하면서 국정을 논하고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다. 정통 유교문화가 발달하게 됨은 물론이었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진보적 민족운동인 동학혁명의 주 격전지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도는 언제나 역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한국 전통사상과 문화가 이곳에 뿌리박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and scrollwork pattern, enclosing the central text.

3. 충남정신의 실체

- * 민족정신의 원류
- * 백제사상의 계승
- * 근대윤리의 기본



충남정신은 ①충효정신 ②절의정신 ③선비정신 ④예의정신
⑤개척정신의 5대정신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은 고조선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념과 백제의 경천애인(敬天愛人)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삼국간의 교섭을 거치면서 절의와 지조, 효성을 존중하는 충효의 문화가 꽃피었고, 오늘에 이르러 고귀한 선비정신으로 열매맺게 되었다.

이 땅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 모두가 성품이 온화하여 남을 용서하는 아량이 넓었으며 체통을 중시하고 예의범

절을 지켜 언행을 신중하게 하였다. 어려운 여건에 처하더라도 변절하거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당당함과 의젓한 기상을 굳게 지켜왔던 것이다.

또한 도덕과 학예를 배워 예의와 의리를 존중하는 기풍이 충남지방에 넘쳐나게 되어 예학(禮學)의 본고장이 된 것이니 우리 지방에서 수많은 충신, 열사, 효자, 효부, 열녀가 나온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사치와 낭비 등 무절제한 생활로 사회의 병리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미덕마저 점차 훼손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충남정신의 실체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표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민족정신의 원류

일반적으로 한국사상의 특성을 인간 중심적이라 한다.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갓가지 건국신화에서 나타났듯이 신(神)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만나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들은 예로부터 인본주의가 우리 민족정신의 으뜸이었음을 시사한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정신을 키워왔다. 모든 가치판단을 인간에 두고 그를 위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충남의 5대정신도 그 주체를 인간에 두고 있다. 인간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주를 이루며(충효, 예의) 인간자신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절의, 선비)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개척) 기본이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삼강오륜의 덕목만 보아도 삼강 중 임금과 신하의 도리, 아

버지와 자식의 도리가 곧 충효정신이요 오륜 중 군신사이의 의리와 친우 사이의 신의는 절의정신이다.

선비는 충남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적 의인의 표상이다.

“얼어 죽어도 겨울은 안 쫓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도 구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선비정신은 민족정신의 뚜렷한 한 갈래이다.

예의정신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을 받는 것처럼 한국정신의 기본에 속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니 인본주의의 근본개념이기도 하다.

개척정신을 민족정신에서 찾기도 어렵지는 않다. 작은 반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륙과 해양에 많은 영토를 개척한 것만 봐도 그 진취적 기상은 뚜렷하다. 개척정신을 서구적 사고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다소 편협된 생각인 것이다.

충남정신이 다름아닌 민족정신의 원류임은 이로써 쉽게 밝혀진 셈이다.

백제사상의 계승

학자들은 백제의 사상을 충효, 절의, 개척으로 집약하고 있다.

세 가지 모두 우리 충남정신과 일치하고 있다. 우리 도가 백제역사의 본고장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충남정신이 백제사상을 계승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인은 의자왕을 백제를 멸망케한 퇴폐적 군주로만 알고 있으나, 실은 해동증자(海東曾子)로 추앙받을 만큼 덕을 지닌 왕이었다. 특히 그의 지극한 효행은 널리 알려진 바다.

백제인의 나라사랑 정신은 성충, 홍수 등 많은 충신들의 충성심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러한 백제인의 마음가짐이 오늘날 충효정신으로 계승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처자까지 죽이고 싸움터에 나간 계백의 비장한 절의정신은 만고에 빛난다. 일본의 비조문화를 잉태시키고 서요에 식민지

를 개척한 것은 백제인의 타고난 개척정신을 드러내는 바다.
고대 동방역사를 좌지우지했던 그 기상이 충남정신으로 이어
내려왔다.

그 밖에도 선비정신은 백제의 숭문사상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오경박사를 두고 일본에 각종 문물을 전파한 것은 학문을
중시하는 선비정신과 통한다.

백제인의 도의정신은 예의정신과 상통한다. 백제의 종교가
유·불·선을 조화시킨 복합적 성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백제인
은 이들 사상의 바른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여기
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 강조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실로 충남정신은 백제사상
에서 그 실체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근세윤리의 기본

우리 도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학의 본고장이 된 것은 잘 알고 있는 바다. 이 유학을 기본으로 근세윤리가 정착되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를 편의상 근세로 분류했을 때 이 시기가 우리 충남정신이 완전 토착화되었던 시기로 생각할 수 있겠다.

유난히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고 훌륭한 선비가 이땅에 살았던 까닭이기도 하겠는데 본래 충청인의 심성이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적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덕(德)과 인(仁)등 도덕을 특히 중요시했던 유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오늘날 충남정신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굳이 이순신 장군을 거론치 않더라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충신과 효자가 있었는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정려,

효자비들만 보아도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으로 죽음을 당한 성삼문의 절의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거니와 맹사성, 송시열, 김장생, 윤증 등 유학의 거두들은 선비정신의 귀감이었다. 이들이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과 예의범절을 가르치며 후학을 길러냄으로써 우리 도는 예학의 터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근대에 이르는 일이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개척정신은 신학문인 실학의 수용, 천주교의 전파, 동학혁명의 전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체로 온유한 성격인 충청인들이 이런 진보적 사상의 보급에 누구보다 앞장선 것은 외유내강의 기질을 드러낸 진정한 용기였다.

백제정신으로 계승된 민족정신이 근세에 이르러 하나의 윤리로 정착되고 그 면면한 흐름 가운데 충남정신은 뚜렷한 실체로 굳어진 것이다.

4. 충남의 5대 정신

* 충 효 정 신

* 절 의 정 신

* 선 비 정 신

* 예 의 정 신

* 개 척 정 신



충남의 5대 정신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지를 되새겨 보는 일과 같다.

조상의 사상 속에 녹아있는 충남정신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을 마음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충남정신이 우리의 정신이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거기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많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철학적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접근이 쉽지 않다.

마음을 열고 부담없이 받아들이되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충남 정신은 그야말로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의 실천덕목이 될 수 있다.

충 효 정 신

충 효 정 신



- 충(忠)은 국가의 윤리이며 효(孝)는 가정의 윤리이다.
- 충효정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아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이며, 특히 관직에 나가면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존중하는 청백리의 정신이다.

성충의 충성

백제시대의 성충은 의자왕이 궁인과 더불어 호화스러운 생활에 빠져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왕에게 상소를 올렸으나 왕은 오히려 화를 내며 성충을 옥에 가두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신하는 왕에게 고하는 자가 없었으나 성충은 또다시 『충신은 죽더라도 임금을 잊지 않을 것이니 한 말씀 올리고 죽고자 합니다』 하며 『앞으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니 방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직언하였으나 왕은 끝내 듣지 아니함으로써 나라가 망했다.

우리는 성충의 고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생각하는 백제인의 충성심을 배울 수 있다.

한교의 효행

고려시대의 한교는 금산에서 출생하였으며 금산 한씨의 시조이다.

한교는 특히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어머니가 병환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자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내어 어머니에게 먹임으로써 소생케 하였으며 그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여막에서 3년을 지내면서 슬퍼하였다.

한교의 효행에 대해 나라에서는 그가 죽은 지 300여년이 지난 뒤에 효자정려문과 효자비를 세워 표창하고 국가적으로 효도를 장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근본으로 중히 여겼으니 우리는 한교의 효행정신을 본받아 부모님 섬기기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

이순신의 충성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은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린 시절 그의 외가가 있던 지금의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로 내려와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선조9년 식년무과에 병과로 급제하면서 무관으로 등용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북선을 사용하여 왜군을 무찔러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공은 노량해전에서 적의 탄환을 맞아 쓰러져 숨을 거두면서도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마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함상에서 눈을 감았다.

이 충무공께서는 후손들의 가슴 속에 나라사랑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영원한 민족의 성웅으로서 진실로 사이불사(死而不死)한 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공의 묘소가 있고 염치읍 백암리 현충사에 영정을 모셨으며 유품도 이 곳에 있다. 탄신일인 4월 28일에는 현충사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윤봉길의 의거

최근세의 윤봉길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우의이고 별명이 봉길이며 아호는 매헌이다.

그는 국권회복을 염원하면서 농촌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민계몽에 매진하였다. 일본의 탄압이 가중되자 나라잃은 서러움을 통탄하면서 고향을 떠나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주벌판에서 애국혼을 불태우며 활동하였다.

그는 일제로 하여금 침략의 야욕을 포기케 하는 길은 일제의 주요인사를 제거하여 조선에도 아직까지 사람이 남아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 유일하다 생각했다. 마침 천장절을 맞아 일본이 홍구공원에서 상해싸움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를 하려는 것을 알고 거사일로 잡았다.

도시락 폭탄과 물통폭탄을 준비하여 행사장을 폭파시켜 일



제침략의 원흉인 시라카와(白川)대장 등 수뇌부를 죽이고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연행되면서도 떳떳하게 조국의 광복을 부르짖었으며 그 후 일본 형장에서 장엄하게 최후를 마쳤다.

그때 나이 25세로 불같은 짧은 생애를 민족의 제단에 바친 것이다.

의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 있는 충의사에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4월 29일에는 의거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는데 그의 유품과 살던 집이 이 곳에 있다.

우리는 윤봉길의사가 남기고 간 구국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조명

충효(忠孝)는 충성과 효도를 말한다.

충성(忠誠)의 충(忠)자는 「인간의 중심(中)되는 마음(心)」을 표현한 문자로 참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라를 향한 정성을 뜻하며, 효도(孝道)의 효(孝)자는 아들(子)이 늙으신(老)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글자로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아버지를 받들고 섬기는 도리를 의미한다.

특히 우리의 선조들은 효를 인간이 지켜야 할 최상의 도리로 여기며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효행의 덕목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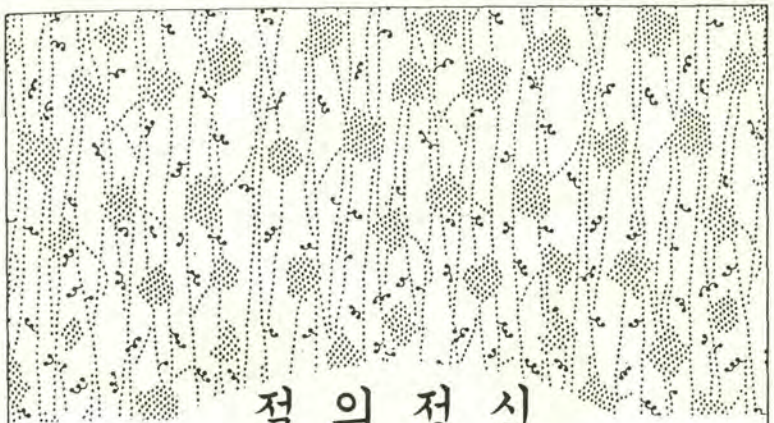
근래에 우리 사회에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폭행하거나,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형제간에 다투는 등 극도의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자행됨을 자주 보게 된다.

이 세상의 슬픔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한다. 부모님들은 신체의 일부를 떼내서라도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고 한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는커녕 학대까지 하고 있으니 인간의 근본에 어긋나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선조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만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고 웃어른을 존경하는 사람만이 이웃에 봉사할 수 있다 하여 인륜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충효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고장의 전통을 되살리고 이어가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절 의 정 신

절 의 정 신



- 절의정신은 처신에 있어서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그 마음이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하며,
- 의로운 일을 위하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결단력과 실천력을 갖는 깨끗한 정신이다.

도미 아내의 절개

백제시대의 도미는 솜씨가 좋은 목수로서 성품이 곧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용모가 뛰어나고 절개가 굳어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 뛰어난 미색이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자 왕은 도미의 아내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자기를 따르도록 종용하였지만 도미의 아내는 임기응변으로 이를 번번이 피하였다.

왕은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도미 아내를 꽤 씹히 여기고 도미를 잡아들여 무자비하게 두 눈을 뺐지만 도미의 아내는 앞을 못보는 남편과 함께 멀리 도망가 정성을 다하여 남편을 봉양하였다.

도미 아내의 이야기는 권력있는 자라면 온갖 횡포를 다 부릴 수 있는 시대에 부당한 권력에 맞서 두 남군 섬기기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길재의 지조

고려시대 삼은 중의 한 사람인 야은 길재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 났으나 관직에 나아가 출세하기보다는 학구적 성향이 강하여 향리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길재가 성균관 박사로 있던 고려왕조 말기에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으로 인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고려왕조가 혼미해지자 처음에는 이성계 일파 신진세력의 개혁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이성계 일파가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려는 기미를 보이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 묻혀 살면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끝까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지조를 지킨 길재의 숭고한 절의정신은 후세의 신하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성삼문의 절의

조선시대의 성삼문은 홍성군 홍북면에서 태어났는데 그를 낳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낳았느냐』하고 묻는 소리가 세 번이나 났다하여 삼문(三問)이라고 이름지었다 한다.

문장이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여 일찍이 식년문과에 급제



하였으며 집현전 학사로서 세종의 신임하에 정사를 돌보면서도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였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상왕의 유지를 받들어 단종복위운동에 적극 가담하다가 김질의 배반으로 실패하였다.

그때 성삼문은 세조(수양대군)에게 『하늘에 해가 둘이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없는 까닭에 이 일을 도모했다』면서 당당하게 답변함으로써 참혹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날 성삼문은 사육신의 한사람으로서, 조선조 500년동안 절의와 지조가 가장 출중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다.

김좌진의 정의감

최근세의 김좌진은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서 태어났다. 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라난 김좌진은 기골이 장대하고 정의감이 뛰어나 약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며 알지 못하는 자를 깨우치는데 앞장서 왔다.

어느날 가족과 집안의 종들을 한자리에 모이게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가 끝나자 그는 집안의 노비문서를 태워 버렸다.

그리고 놀라워하는 종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고 “오늘부터 너희들은 모두 자유다. 이제 종이 아니니까 나가서 이 돈으로 살림을 장만해서 잘 살아보도록 해라”하였다. 또한 논·밭을 경작하던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는 자기가 살던 80여칸의 집을 비워 호명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힘썼다.

이처럼 약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며, 무지몽매한 자를 깨우쳐 주려고 애썼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게되자 이를 통탄하면서 우리 민족의 무력함을 깨닫고 조국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군인을 길러내는 일 뿐이라며, 대한협회라는 구국단체를 조직하고 성동 사관학교를 세워 정예군 양성에 공헌하였다.

임시정부로부터 군무총장, 국무위원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오직 독립군 양성에만 전력하여 일본군과 싸워 대승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의 항일세력과 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대일항전을 꾀하다가 1930년 1월 26일 같은 민족인 고려공산당원의 흉탄에 맞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북만주 이국땅에서 조국 독립의 한을 가슴에 품고 장엄하게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김좌진 장군의 용감성과 정의감을 거듭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적 조명

절의(節義)는 절개와 의리를 말한다. 이것은 신념이나 신의를 굽히거나 버리지 아니하는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다.

신의(信義)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신(信)은 참이요 의(義)는 올바름이다. 그러므로 참된 것과 올바른 것으로 이루어진 신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결속시키는 다짐이며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각 분야에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소하여 사회를 화해롭게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공통의 규범이나 도덕과 윤리가 바로 지켜지지 않아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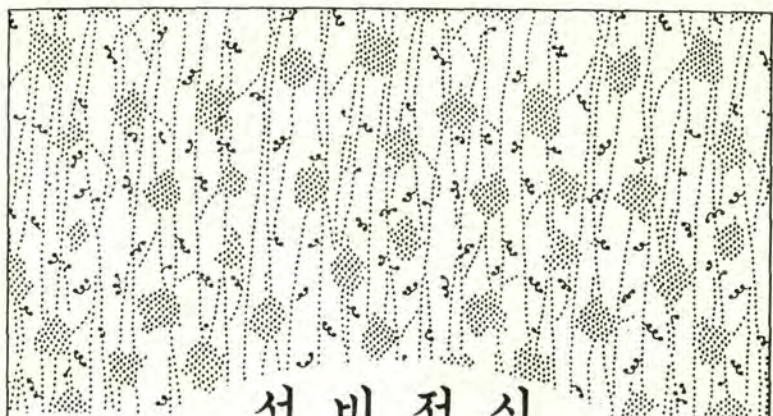
물질주의의 만연과 향락풍조의 범람으로 사람들을 배금주의에 물들게 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풍양속은 점차 사라져 가고 사회에는 각종 범죄행위와 무질서만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공명정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지조있는 결백한 생활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선조들의 결백한 정신과 절의정신을 이어받아 서로가 신뢰하면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선 비 정 신

선 비 정 신



- 선비정신은 도덕과 학예를 배워서 예의와 엄치를 알고 사리를 판단할 줄 알며 절의와 지조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겨 비겁하게 살지 아니함은 물론,
- 악(惡)을 범하지 않고 언행을 바르게 하여 법도를 지켜나감으로써 의리를 존중하는 정신이다.

청백리 박문수

조선시대의 박문수는 8세 때 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3년 안에 돌아가시고 15세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심에 따라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친척집에서 학문을 익히다가 비교적 늦은 33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등 서민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는 어영대장, 수군절도사와 우금찬을 지내고 임금(영조)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받았지만 재상에 오르지는 못했다.

비록 임금 앞에서라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직언을 하였기 때문에 재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나 진실로 백성을 위하고 문란해진 국가 기강과 궁핍한 국가재정을 일으키는 데 전심전력하였다.

이와 같이 선비는 관직에 나가면 청렴하고 강직하며 오직 백성을 위하고 국가·사회에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상재의 신의

근세의 이상재는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나라잃은 슬픔에 통분하면서 모든 관직을 버리고 서재필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차례 걸쳐 투옥되어 복역하던 중 이승만을 만나 기독교 신자가 된 후 출옥하였다.

그 후 황성기독교청년회(YWCA)의 총무 겸 교육부장으로 있으면서 청년들의 교양지도와 교육에 힘쓰는 한편 그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켜 왔다.

그 때 총독부에서는 황성기독교청년회의라는 단체이름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황성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 버리고 조합교회에 흡수시켜 그 지배권을 빼앗으려는 야심으로 5만원(현재 수백억원의 가치)을 줄테니 고향에 내려가 여생을 편히 지내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상재는 『이 돈으로 땅을 사라니, 나더러 죽으라는 말인가? 나는 타고나기를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팔자가 아니다』라며 그 유혹을 물리쳤다.

일본인의 갖은 협박과 유혹을 끝까지 물리쳤으며 지조와 신의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 온 그의 높은 기상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지함의 청빈

조선시대의 토정(土亭) 이지함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형의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며 벼슬길에 올랐다.

그는 아산현감으로 있으면서 걸인청(乞人廳)을 만들어 관내 걸인을 수용하고 노약자와 굶주린 백성들의 구호에 힘썼으나 자신은 물욕없이 마음 편하게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거리를 지나다가도 걸인들이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도포를 벗어서 나누어 주는 등 인정을 베풀며 살았다.

관직을 물러난 후에도 어엿한 집 한 채가 없어 한강주변에 다 땅을 파, 비와 이슬만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흙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토정선생이라고 칭하였다.

토정이 운명하게 되었을 때 부인은 남편을 보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신수도 다 보았구려.”하니

“내가 뭐 하늘의 이치를 알아서 신수를 보았는가? 사람들이 하도 졸라서 보아 준거지.”하였다.

“그러면 앞 일을 모르면서 사람들을 속였군요.”하니

“속인 것도 아닐세. 그들은 내가 신수를 안봐주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기어이 신수를 보아서 속아야만 마음이 편한 걸”하고 말했다 한다.

이웃의 마음을 편히 해주기 위해 구차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선생의 선량한 마음씨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소박한 사람들에게 신수를 보아준 책이 오늘날까지 전하여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토정비결(土亭秘訣)이다.

이와 같이 이지함은 마음이 청렴하고 욕심이 없었으며 뛰어난 재주와 탁월한 지식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효성스러우며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과는 늘 고통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그의 청빈정신을 높이 받들어 물질보다 인륜을 중시하는 마음을 가져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색의 단심(丹心)

고려시대 지조를 지킨 학자 삼은 중의 한 사람인 목은 이색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나이 14세에 성균관시험에 합격하여 일찍부터 명성이 자자하였다.

그는 고려와 조선이 교체되는 소용돌이 속을 맴돌면서 전제개혁과 불교정화에 힘쓰는 한편 성리학과 시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관직에 있으면서 배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부원파를 제거하는 등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였고 왜구의 침략방지책과 홍건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상소하여 고려 왕조를 유지하는 데 공을 세웠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의 극진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사양한 채 『망국의 몸이 어찌 편히 살기를 꾀하겠는가』라며 초야에 묻혀 지조를 지켰다. 말년에는 나라를

나가면 청렴결백한 생활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사실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러한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쌓고 검소하고 절제있게 생활하며 자신에게는 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량을 베푸는 인간미 넘치는 삶의 자세로 훈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예 의 정 신

예 의 정 신



- 예(禮)는 이웃에 대한 나의 질서있는 태도이며 의(義)는 국가에 대한 나의 책임있는 의무이다.
- 예의 정신은 질서의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나가며 절도와 의리를 숭상하고 항상 겸손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세이다.

김장생의 예의

조선시대의 김장생은 그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지금의 논산시 연산면에 거주하면서 11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객지로 나갔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학문을 탐구하여 ‘의례문해’(疑禮問解)와 ‘가례집람’(家禮集覽), 그리고 ‘상례비요’(喪禮備要)라는 책을 저술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읽고 행하게 하였다.

또한 스승인 이율곡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여 상복을 입고 매월 1일과 15일에 곡을 하는 등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스승의 자제는 친척과 같이 대하며 돌보아 주었다.

그는 「예의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억제하고 천리(天理)를

보존시키는 법칙이다」라고 하여 예학이 곧 우주만물의 기본이며 인간생활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순수 실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김장생의 예의정신을 높이 받들어 물질만능 풍조로 인한 도덕의 실종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집의 예학

김집은 김장생의 아들로써 18세에 진사에 합격하고 37세에 참봉이 되었으나 광해군의 정치가 어지러움을 보고 시골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예학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실생활에서도 예를 실행하려고 애쓴 도학자였다. 『혼자 걸어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혼자 잠을 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호를 신흥재(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아니함)라 하였다.

사생활은 너무나 예의범도에 어긋남이 없었으므로 인근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는 아버지 김장생의 예학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시대 예학의 기본체제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천리를 잊게하는 법칙이다”라고 하여 오늘날 충남이 우리나라 예학의 본고장이 되게 하였다.

송준길의 도학

조선시대 송준길은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명철하고 지혜로워 분수에 맞고 예의에 바르게 행동하였다.

효종이 즉위하자 기용되어 효종과 함께 북벌계획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좌절되어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 후에도 수십 차례나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고 향리로 내려갔다.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법도에 맞는 생활을 함으로써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도학자였다.

그는 벼슬에 나가기를 꺼려하여 오직 향리에서 학문을 닦고 후배를 교육시키는데 힘써왔다.

병조판서가 되어 국정에 참여하던 중 효종이 별세하고 현종이 즉위한 후 대비(大妃)의 복상문제로 다투게 되자 우암 송시열과 함께 3년제를 반대하고 기년제(만1년)를 주장하여 논



란 끝에 기년제가 채택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는 임금께 몇 번의 사퇴를 간청하여 허락을 받고, 고향인 회덕에 내려가 동춘당에서 도학을 연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송준길은 예학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분수에 맞도록 적절하게 예절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을 교화시켰다.

우리는 예의와 의리를 귀중하게 여기며 일생을 보낸 송준길의 언행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현대적 조명

예의(禮義)는 예절과 의리로서 예(禮)는 가정의 윤리요, 의(義)는 국가의 윤리이다. 즉 사람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로서 질서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은 각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하게 되는 규율이 되며 이를 윤리 또는 도덕이라 하고 이 규율이 객관적인 구속성을 가질 때 규칙 또는 법규라고 한다. 인간은 사람마다 나뉠 대로의 개성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서로 돕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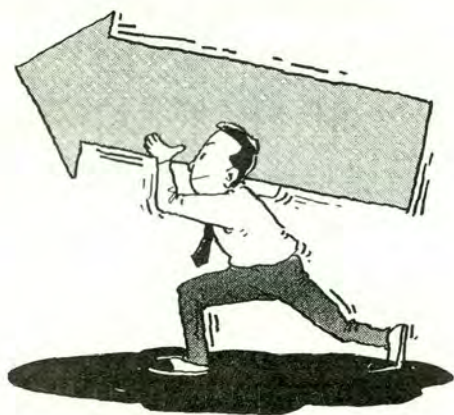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구문명이 여과없이 도입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도덕의 가치관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마저 망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의를 중요시하며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고 윤리를 존중하며 살아왔기에 옛부터 우리나라를 동방 예의지국이라 부르며 예의가 바른 민족임을 인정해 왔다.

우리는 선조들의 예의정신을 본받아, 공동체의식을 갖고 공중도덕과 각종질서를 지키는 것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며, 이 길만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개척정신

개척정신



- 개척정신은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여 창조적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정신이다.

아직기의 개척정신

백제 근초고왕 때 아직기는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미개한 일본으로서는 고도로 발달된 백제의 문화수준을 동경하면서 백제에 학자 파견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학자들은 낯선 이국만리 타향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기는 미개한 이웃나라에 학문을 전달하여 개화를 시켜 주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자진하여 일본에 건너가 미개한 일인(日人) 들을 깨우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문화수출이다.

또한 이것은 백제가 남·북으로 영토를 넓혀가던 그 위대한 개척정신과도 상통하는 문화적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심훈의 농촌운동

최근세의 심훈은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투옥되어 퇴학을 당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얼마 후 고국에 돌아온 그는 신문화운동을 통한 사회개혁을 해야 한다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국내에서의 작품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일본에 건너가서 영화를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의 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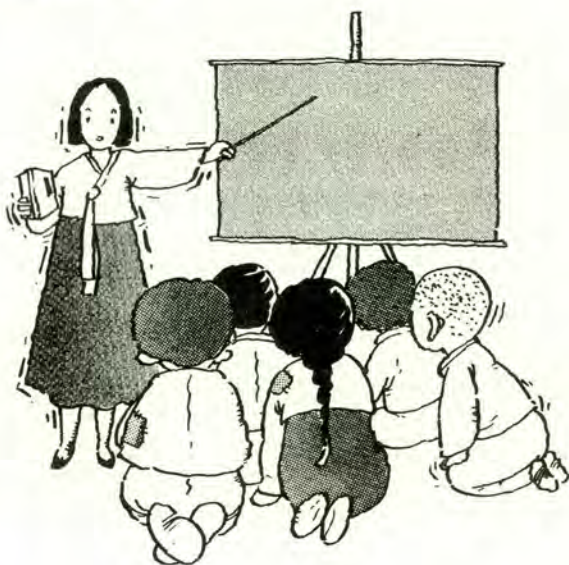
일본의 엄중한 검열로 인하여 영화활동에 제약을 받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사시는 당진군 송악면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특히 항상 두툼한 수첩과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면서,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면 그때그때 기록하곤 하였는데, 나라

와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촌을 소재로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농촌개발과 농촌청소년의 교육에 몸을 바치는, 젊은 남녀의 눈물겨운 농촌계몽운동을 묘사한 대표작 「상록수」는 당시 사회에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키며, 젊은이들의 마음에 정들고 아름다운 자신들의 고향을 피와 땀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애향정신을 깊이 심어 주었다.

나라잃은 슬픔을 달래가며 적극적인 농촌운동으로 나라의 힘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한 그 학생들의 이야기는 선생의 높은 민족계몽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후세 농촌운동가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서재필의 개혁정신

최근세의 독립투사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건너가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본국에서 개화파가 등용되면서 귀국한 그는 벼슬을 마다한 채 민족의 계몽사업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우리나라를 구하자면 민중을 교육시키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합리적인 교육과 정당한 개혁을 장려함으로써 민족계몽을 통한 애국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워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과시했다.

진취적이며 개혁정신이 강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민족의 선각자 서재필 선생이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겨레 사랑의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준 분이셨다.

현대적 조명

개척은 새로운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길을 열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인은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외면과는 달리 내면에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 우리의 문화를 전해 준 아직기를 비롯하여 이상적인 농촌상을 그리며 소설 상록수를 발표하여 농촌계몽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한 심훈, 독립문 건립을 주도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한 서재필 등 근대에 이르기까지 개척정신은 충남인의 정신 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기 위한 일대 변혁운동이 국가적 차원으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든 일을 소극적으로 적당히 하거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의 도움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척은 과거의 제도와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혜를 모아서 미지의 세계로 발돋움하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시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에만 만족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가는 현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겨준 귀중한 정신 곧 개척정신을 본받아 무한경쟁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5. 충남을 빛낸 명인들

* 삼국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최근세



충남을 빛낸 명인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먼 삼국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움직인 선현들이 바로 이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저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가셨다.

이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후손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빛내는 것도 우리 일이다.

여기서 그분들의 이름과 업적을 짧게 되새겨 보는 것으로 이런 소명에 값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충남이 있기까지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충남 창조를 위한 지표를 삼는데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 삼국시대 ●●●●●

○ 아직기(阿直岐)

- 백제시대에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최초로 전한 사람.
- 일본의 태자인 토도치랑의 스승이 되어 공부를 가르침.

○ 왕인(王仁)

- 아직기의 추천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치랑자의 스승이 되고
- 우리나라의 유교사상과 한학을 일본에 전파하여 아스카(飛鳥)문화형성에 큰 공헌.

○ 성충(成忠)

- 백제의 장군으로서 자만심에 빠진 의자왕에게 죽어가면
서까지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상소하였으나
- 의자왕은 끝내 듣지 아니하여 백제가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옴.

○ 흥수(興首)

- 성충과 같은 시대의 충신으로서 귀양살이를 하면서까지
왕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건의를 올렸으나 의자왕이 이를

무시하여 백제가 멸망하게 됨.

○ 계 백(階伯)

-백제를 침공한 신라 김유신장군 5만군대를 황산벌에서 격퇴.

-처자가 적에게 잡혀 노비가 되어 살아서 욕을 보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하여 손수 처자식을 죽이고 최후의 결전에 나감.



●●●● 고려시대 ●●●●

○ 강민첨(姜民瞻)

- 강감찬장군의 부장(副將)으로서 응화진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퇴.
- 예산군 대술면 이치리에 묘소가 있음.

○ 서 공 (徐 恭)

- 용맹스럽고 무술이 뛰어나며 충성심이 강한 명장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고려의 충효록에도 올라 있음.
- 그의 효자비는 부여고등학교 부근에 세워져 있음.

○ 한 교 (韓 暲)

- 문과에 급제하여 보문각 직제학과 좌리 공신에 봉하여짐.
- 효행이 극진하여 당대에 귀감이 되었으며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정려문과 비석이 있음.

○ 최 영 (崔 瑩)

- 원나라와 왜구의 침입을 격퇴시키고 북진주의 정책을 펴

요동정벌을 주장한 백전백승의 무장.

-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에서 출생하였고 그곳에 장군의 사당이 있음.

○ 이 색 (李穡)

- 고려와 조선의 교체기에 전제개혁과 불교정화에 힘썼으며 성리학과 시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
-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에 그의 사당인 문헌서원과 묘소가 있음.

○ 이 첨 (李 澹)

- 조선조 건국과 함께 이조전서로 등용되었으며 동국사략이란 책을 저술
- 홍성군에서 태어났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남.

○ 길 재 (吉再)

- 성균관에서 박사로 봉직하였고 문하부에 근무하다가 향리에 묻혀 후학을 양성하여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 등 대가를 배출.
-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에 사당인 청풍사가 있음.

●●●●● 조선시대 ●●●●●

○ 맹사성(孟思誠)

- 세종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으며 태종실록 등을 감수하여 조선 초기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
- 청백리로서 효성이 지극한 정승으로 당대에 존경을 받음
-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고택인 맹씨 행단이 있음.

○ 유씨부인(柳氏夫人)

- 남편인 송극기가 사망하자 친가와 시가의 부모님들이 개가할 것은 종용하였으나
- 어린 자식인 송유와 늙은 시부모 봉양을 위해 평생을 수절한 열녀임.

○ 김종서(金宗瑞)

- 세종 때 함길도 관찰사가 되어 6진을 개척함으로써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음.
-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에 묘소가 있음.

○ 정인지(鄭麟趾)

- 세종 때 집현전 부제학을 지내면서 성삼문, 신숙주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 최초의 한글노래인 용비어천가를 지었음.
-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서 출생.

○ 장영실(蔣英實)

- 세종 때 과학적인 관찰력과 손재주가 뛰어나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인 자격루와,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
- 아산시에서 출생.

○ 김국광(金國光)

- 세조와 성종 때 최항, 한계희, 노사신과 함께 경국대전 편찬.
-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에 묘소가 있음.

○ 양성지(梁誠之)

- 세조 때 사헌부의 대사헌을 지냈으며 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편찬.
-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에 귀암사를 건립하고 배향.

○ 박팽년(朴彭年)

- 집현전학사로 성삼문과 함께 일했으며, 단종의 복위를 도모한 사육신의 한 사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더퍼리에서 출생.

○ 이 개(李塏)

- 집현전 직제학에 있으면서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하고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의 한 사람.
-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의 충곡서원과 서천 한산의 문헌서원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음.

○ 안 견(安堅)

- 조선시대 전기의 대화가로 몽유도원도, 설천도, 적벽도를 그림.
- 서산시 지곡면에서 태어났으며, 기념관은 지곡면 화천리에 있음.

○ 서거정(徐居正)

- 사헌부의 대사헌을 지냈으며 경국대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
-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에 묘소가 있음.

○ 김시습(金時習)

-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음.
-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무량사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영정이 있음.

○ 정광필(鄭光弼)

- 삼포왜란을 수습하고 영의정을 지냈으며 「정문익공유고」를 저술.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남.

○ 김일손(金駟孫)

- 춘추관의 기사관이 되어 '성종실록'의 사초를 썼으며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됨으로써 이 때 세상을 떠남.
- 천안시 동면 구도리에 묘소가 있음.

○ 김 구(金絿)

- 왕희지의 필체를 본받은 조선 전기 서도의 대가이며 조광조 등과 개혁정치를 시도하다 기묘사화 때 개령으로 유배.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묘소가 있음.

○ 상 진(尙震)

- 평종 때 형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으며 넓은 마음
과 바른 예절, 높은 덕망으로 조선조 3대 정승의 한 사람
이라 칭함.

- 천안시 목천면 남화리에서 출생.

○ 이지함(李之菡)

- 호는 토정이며 서경덕의 수제자로 움막집에서 주역을 연
구하여 통달함.

- 아산현감 때 걸인청을 만들어 걸인을 수용하고 노약자와
굶주린 사람을 구호함.

-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묘소가 있음.

○ 고경명(高敬命)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천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구를 물
리치다가 순국함.

-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칠백의총에 사당과 순절비가 있음.

○ 영 규(靈圭)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백명의 승병을 거느리고 의병장 조현과 함께 왜군과 싸우다 7백의사들과 같이 장렬하게 죽음.
- 공주시 계룡면 봉명리에서 출생하였고 계룡면 유평리에 묘소가 있음.

○ 송익필(宋翼弼)

- 성리학에 통달하여 김장생, 정엽같은 예학의 대가를 길러냄.
- 지혜롭고 재주가 많았으며 문장이 뛰어나 당시 문장팔대가의 한사람으로 불림.
-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에 묘소가 있음.

○ 이산해(李山海)

-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문장에 능하여 야계집을 저술
- 서천군 한산면에서 태어났으며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있음.

○ 남이흥(南以興)

- 무과에 급제하여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정묘호

란 때 청나라와 싸우다 무기가 떨어져 승산이 없자 성에
불을 지르고 자결.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에 묘소와 사당이 있음.

○ 조 헌(趙憲)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통진현감 등을 두루
거쳤고

-굶핍 줄 모르는 성격을 지녔으며 선견지명이 뛰어나 임
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7백명의 군사를 이끌고 금산으로
내려가 싸우다 장렬하게 죽음.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의 칠백의총에서 제향하고 있음.

○ 김시민(金時敏)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면서 진주
에서 군사 3천명으로 왜군 3만명을 격퇴시킴.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에서 태어났음.

○ 김 집(金集)

-사계 김장생의 아들로 예학의 기본체제를 이룩하고 실지
생활에 맞는 예법을 정립.

-논산시 벌곡면 양산리에 묘소가 있음.

○ 송시열(宋時烈)

-주자학의 대가이며 노론의 개조로서 당정의 중추적인 존재.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송자대전이 있음.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더퍼리에 유적이 있음.

○ 유 계(兪槩)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에 대해 척화를 주장하였음.

-성리학과 사학에 밝고 예론에 정통하였으며 이조참판을 지냄.

-부여군 임천면 칠산서원에서 제향.

○ 국현남(鞠賢男)

-효심이 지극하여 당대에 귀감이 되었으며 임금님까지 감탄한 효자.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에 효자문이 있음.

○ 윤 휴(尹鑄)

-대사헌과 우찬성을 지냈으며 세제 및 전제개혁과 상평창

- 시행을 주장하였고, 주자학에 권위가 있었음.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보문산에 묘소가 있음.

○ 윤 증(尹拯)

- 우참찬과 우의정 등에 제수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학문과 진리 탐구에만 몰두하였음.
-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군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삼공의 지위까지 오름.
- 윤선거의 아들로 금산에 거주하였음.

○ 김만중(金萬重)

- 유복자로서 대사헌과 대제학을 지냈으며 효성이 지극하여 「구운몽」을 지어 어머니를 위로함.
- 장희빈을 왕비로 삼으려는 숙종에 반대하여 남해에서 귀양살이하다 세상을 떠남.

○ 채제공(蔡濟恭)

- 삼정승을 지내면서 민생개혁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천주교 박해에 반대하고 나선 소신파임.
-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에 묘소가 있음.

○ 김정희(金正喜)

- 헌종 때 형조참판을 지냈으며 서도의 대가로 추사체 창시.
- 제주도에 유배 당시 부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세한도」를 그렸으며, 금석학에도 조예가 깊어 북한산에 있는 신라진흥왕 순수비를 발견과 고증.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고택과 유품이 있음.



●●●●● 최 근 세 ●●●●●

○ 최익현(崔益鉉)

- 대원군을 퇴출시킨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우리는 자주민임을 선포하고 왜군과 투쟁을 결의.
- 73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나 군량과 병기가 부족하여 왜군에게 체포당해 대마도로 유배되어 단발을 강요당했으나 단식으로 대항 끝에 죽음.
- 청양군 목면 송암리에 사당이 있음.

○ 김옥균(金玉均)

- 개화운동을 주도하였으며 박문국을 설치하고 근대 신문의 효시인 한성순보를 발간.
-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묘소가 있음.

○ 이남규(李南珪)

- 형조참의를 지내면서 미신을 배척하는 등 사회풍조 정화에 노력.
- 을사보호조약을 맺자 이에 항거하다 의병을 일으킨 혐의

로 투옥.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에 옛집이 있음.

○ 이종일(李鍾一)

-정삼품까지 지냈으나 민중계몽과 개화운동으로 국권회복에 주력.

-조선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천도구국단을 조직하여 애국계몽운동 전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생가가 있음.

○ 민종식(閔宗植)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폐지 운동을 추진하고 청양, 홍성에서 의병을 일으킴.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 옛집이 있음.

○ 윤치호(尹致昊)

-독립신문사장으로 있으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자주·자립사상 고취.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학문을 탐구하면서 애국 계몽운동 전개.

-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서 태어남.

○ 이동녕(李東寧)

- 신민회를 조직하여 청년운동과 개혁운동으로 구국활동 전개.

- 상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장, 내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독립운동 전개.

- 천안시 목천면 동리에서 태어남.

○ 한용운(韓龍雲)

- 불교개혁가로 불교 유신론을 제창하면서 독립운동 전개.

- 33인의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을 했으며 뛰어난 민족시인으로 「님의 침묵」을 지음.

-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남.

○ 윤백남(尹白南)

- 한국최초의 영화제작자이며 1912년 극단 문수성을 창단하여 불여귀, 천리마를 공연하고, 민중극단을 조직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연극을 공연하는 등 신극운동 전개.

- 최초의 대중 장편소설인 「대도전」을 동아일보에 발표.

- 공주시에서 태어남.

○ 조병옥(趙炳玉)

-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인회를 조직하여 이승만,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투쟁.
- 신간회를 창립하여 항일투쟁운동전개, 해방후 3·4대 국회의원 지냄.
-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남.

○ 이범석(李範奭)

- 운남육군강무학교 기병과를 졸업하고 조국광복운동 전개.
- 북로군정서본부의 김좌진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격퇴.
- 1948년 정부수립 후 초대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역임.
- 천안시 목천면 서리에서 태어남.

○ 유관순(柳寬順)

-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문맹퇴치에 앞장선 독실한 기독교인.
- 이화학당에서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휴교령이 내림에 따라 고향에 내려가 밤새워 태극기를 만들어 나누어 주며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

-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으로 일본헌병에 붙잡혀 법정에서 한국인이 일인(日人)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감옥에서 순국.
-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남.



6. 충남정신의 발양

- * 의의(意義)
- *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 * 내가 지녀야 할 도리
- * 가정은 화목하게
- * 고장은 살기 좋게
- * 사회는 질서있게

의의(意義)

지금까지 충남의 얼을 찾아 충남정신의 실체와 뿌리인 5대 정신 즉 ①충효정신 ②절의정신 ③선비정신 ④예의정신 ⑤개혁정신에 대하여 선열들의 업적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 보았다.

인간은 개인마다 충분한 존재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내린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 삶을 꾸려나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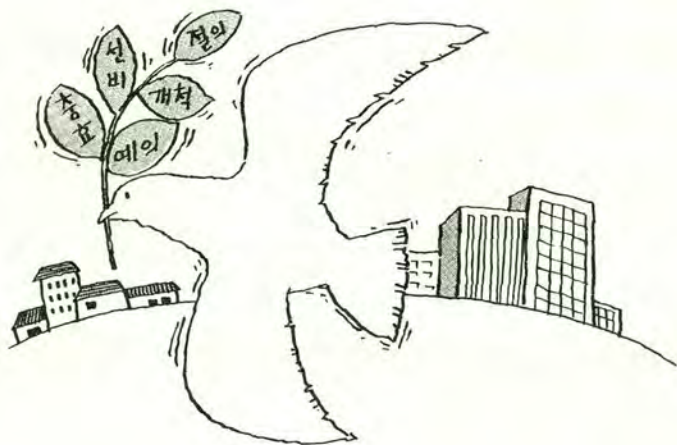
화목한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이웃과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도와가는 것은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 실천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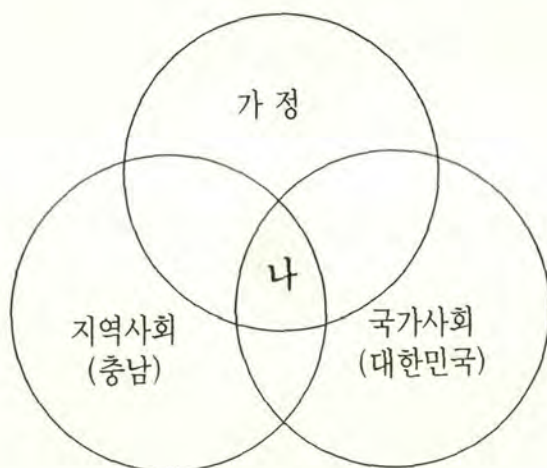
수 있는 덕목을 생각해보고 충남정신을 자치시대에 알맞는 도
민정신으로 재정립하여 도민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한
다. 이것은 곧 충남정신을 발양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21세기로 향한 새로운 정신문화를 창조하는 시대
정신으로 발전시켜 보다 나은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충남정신을 발양시키고자 하는 참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나」라는 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나로 인해 구성된 이 세 가지의 구성체를 온전하게 존재토록 하는 길이며 이 구성체가 온전해야만 내 삶도 그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 「여기(가정·

지역사회·국가사회)」에서 내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자세를 정리해 보면

1. 나의 고유한 직분(이름에 걸맞는 분수)을 올바르게 인식·자각·인정해야 한다.
2. 내가 해야 할 일(의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여럿과 더불어 절도에 맞게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3.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남에게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4. 새로운 나의 인생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야 한다.

내가 지녀야 할 도리

◆ 개인의 실천덕목

○ 자율(自律)

스스로 자기에게 명하고 이를 스스로 따르는 자유가 자율이다.

○ 존경(尊敬)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타인도 함께 받드는 마음은 삶의 참다운 평등을 보장한다.

○ 신의(信義)

서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며 성의를 다하면 신임을 받는다.

○ 양심(良心)

사리사욕을 버리고 남을 의식하며 최고의 선을 찾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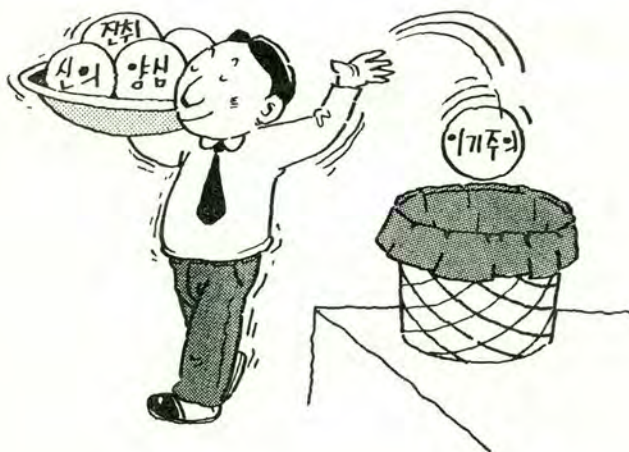
력이다.

○ 수분(守分)

자기 처지에 부합되고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분수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

○ 진취(進取)

향상과 발전을 위해 변화와 새로움을 찾는 적극성이 필
요하다.



◆ 개인생활 10훈(訓)

- 나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된다.
- 풍부한 인간미로 나의 인품을 닦는다.
- 말은 품위있게, 표정을 밝게 한다.
- 자신이 귀한 만큼 남 또한 귀하게 여긴다.
- 나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다.
- 지나친 결벽(潔癖)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
- 나의 분수에 맞는 생활로 욕됨이 없게 한다.
- 이득이 있는 것을 알면 의로운가 생각한다.
- 나 자신이 도덕·윤리실천의 주체임을 잊지 않는다.
- 나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자연을 지킨다.

가정은 화목하게

◆ 가정의 실천덕목

○ 효도(孝道)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욕됨이 없도록 하며 부모를 받들어 모신다.

○ 자애(慈愛)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참사랑이다.

○ 애정(愛情)

서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창조 의 힘이다.

○ 우애(友愛)

형제간에 모든 것을 베푸는 지극한 애정으로 순수한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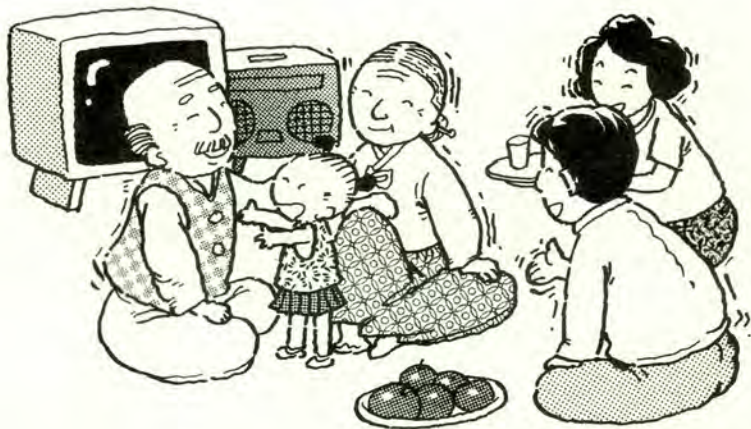
애다.

○ 관용(寬容)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신의 일처럼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 준다.

○ 근검(勤儉)

성심 성의를 다하되 분수를 아는 검소한 생활은 삶을 보람있게 한다.



◆ 가정생활 10훈(訓)

-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예절을 지킨다.
- 서로 신뢰하며 애정으로 보살핀다.
-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
-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 식사는 가족 전원이 함께하며 단란한 시간을 갖는다.
-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는데 힘쓴다.
- 호화혼수는 참된 자식 사랑이 아님을 명심한다.
- 내 집과 이웃의 쾌적한 환경에 힘쓴다.
-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훌륭한 가풍을 이어간다.
- 좋은 가훈을 가지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갖는다.

고장은 살기 좋게

◆ 이웃의 실천덕목

○ 박애(博愛)

내 가정, 내 고장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연다.

○ 경로(敬老)

노인은 오늘을 있게 한 원로이므로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한다.

○ 호혜(互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의미와 보람을 느낀다.

○ 인보(隣保)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불행을 함께 나누며 살

아간다.

○ 준법(遵法)

비록 남들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술
선 실천한다.

○ 협동(協同)

서로의 힘과 뜻을 모아 고장발전에 봉사하는 생활태도를
갖는다.



◆ 이웃생활 10훈(訓)

- 상부상조하며 향토를 가꾸어 나간다.
- 일일일선(一日一善)의 생활자세를 갖는다.
-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으로 고향행사에 참여한다.
- 고향의 맛과 멋과 기(技)를 조장해 나간다.
- 효친 경로하며 청소년 지도에 앞장선다.
-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향토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 과소비 풍조를 지양하는데 솔선수범한다.
-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돕는 따뜻한 손길을 뻗친다.
-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지혜를 짜낸다.
- 아껴쓰며 저축하는 습관으로 공동재산을 마련한다.

사회는 질서있게

◆ 사회의 실천덕목

○ 근면(勤勉)

나의 일에 애착을 갖고 보람과 긍지를 찾는다.

○ 성실(誠實)

성의와 지혜를 다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양심껏 행동한다.

○ 검소(儉素)

검약하는 자세로 사치를 삼가며 꾸밈 없는 소박함으로 친밀감을 심어준다.

○ 신뢰(信賴)

서로 믿고 의지하는 상부상조의 분위기로 대화와 참여 속에 일체감을 형성해 간다.

○ 책임(責任)

자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의 구실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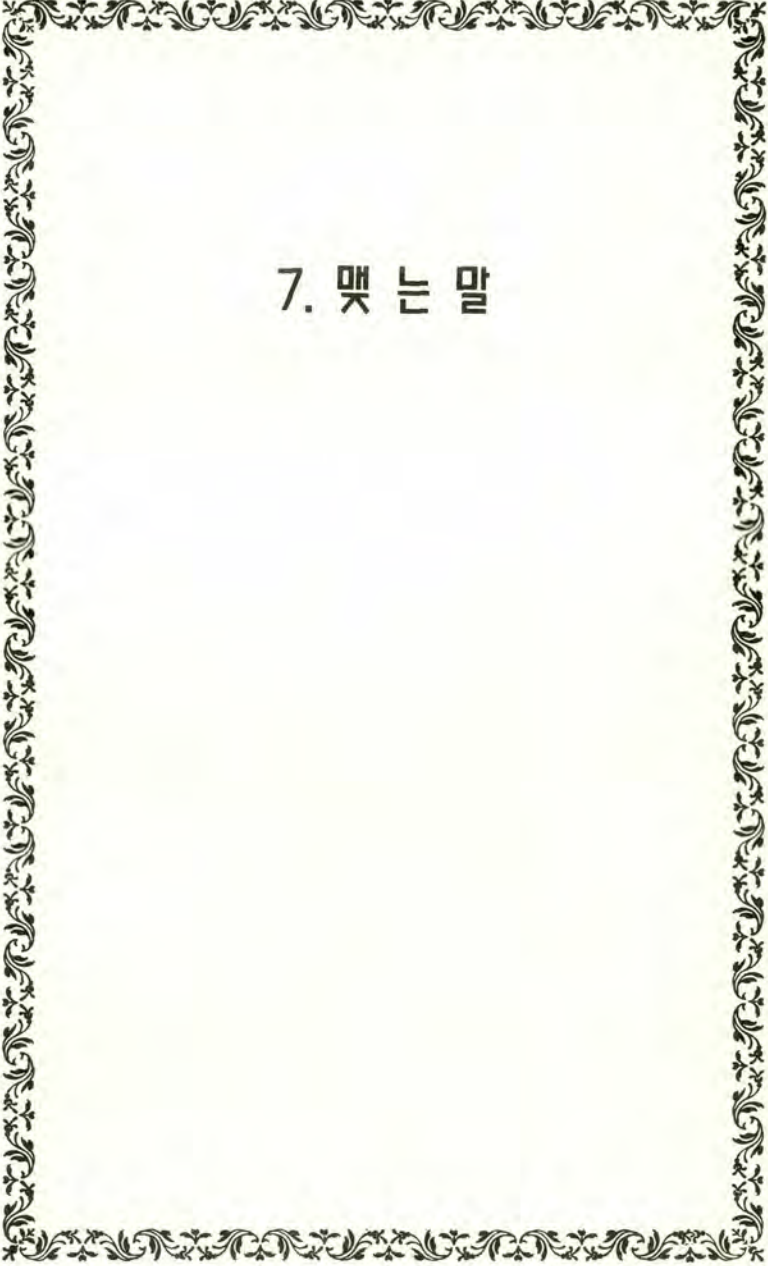
○ 질서(秩序)

내 처지를 바로 알고 내 위치를 지키며 내 할 일을 성실히 해간다.



◆ 사회생활 10훈(訓)

- 항상 최선을 다하여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 서로 믿고 의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든다.
- 남보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인다.
- 성심 성의껏 일하되 결과에 책임진다.
-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신념으로 성취한다.
- 생각하고 연구하여 새로움을 창조한다.
- 스승을 존경하고 제자를 사랑으로 보살핀다.
- 노사간 양보하여 화합풍토를 이룬다.
- 직장을 내 집처럼 아끼고 직원은 내 가족처럼 사랑한다.
- 질서는 내가 먼저 지켜 명랑한 사회를 만든다.

A decorative rectangular border with a repeating floral and scrollwork pattern, enclosing the central text.

7. 맺는 말

맺 는 말

수십만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되어 찬란한 백제문화를 꽃피우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족정통의 맥을 이어온 우리 충청남도는, 1896년 충청도에서 분리되어 공주에 도청을 둔 이후 올해로 개도 100주년을 맞았다.

지난 한 세기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만큼 성장한 것은 선현들로부터 이어 받은 당당한 충남의 얼과 정신이 우리 가슴에 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정진해 온 우리 도민이야말로 위대한 백제인의 후예로서 오늘날 충남의 역사를 일군 사람들이다.

이제 새로운 백년을 위해 새출발을 다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새삼스레 충남의 얼과 맥을 되짚어보고 충남정신의 실체를 다시 고찰해 보는 이유는, 전통없는 미래가 없듯이 충남의 전통사상이 앞으로 충남 100년의 정신적 지표가 된다는 생각에

서이다.

그러므로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의 다섯가지 정신은,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인간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나 분명 정의롭고 희망찬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한 인간의 기본 심성이다.

나라와 부모가 존재하는 한 충효정신은 만고불변의 최고 도덕일 것이요, 인간 사이에 정의가 통하여 누구나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절의정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의로운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아름답고 우직스런 고집이 귀감이 되듯 선비정신은 현대의 마지막 남은 지조이다.

질서있는 사회를 위해서 예의정신은 기본이며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개척정신은 필수적이다.

이처럼 충남의 5대정신은 과거의 정신과 사상이 아니라 지금도 소용되고 앞으로도 필요한 가치이다.

아무리 훌륭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고귀한 얼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것을 갈고 닦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쓸모없는 유산일 뿐이다.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당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후세에 어떤 모습으로 전승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충남의 얼과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많이 생각하고 되새겨야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차원높은 이념이다. 이를 우리가 어떻

게 현실감있게 느끼고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좀더 쉽게, 좀더 가까이 충남의 얼과 정신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행되는 것이다.

충남의 얼과 맥을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입장에서 살펴 보았고 충남정신의 실체를 민족정신과 백제사상, 근세윤리와 접목시켜 고찰해 보기도 했다. 충남정신 하나 하나를 주로 대표적 선현의 예를 통해 되짚어 보았으며 충남을 빛낸 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시대별로 소개했다.

우리의 현 위치를 재조명해보고 몇 가지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충남의 얼과 정신을 바탕으로 충남인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 것이다.

그러나 충남정신의 발양은 도민들의 실천없이는 구호에만 그칠뿐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충남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고 작고 쉬운 일부터 하나 하나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 개도 100주년과 함께 새출발하는 우리 충남을 4천만이 진정으로 살고 싶어하는 복된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충남인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대한 충남정신의 발양에 도민 모두가 동참하게 되길 기대한다.

..... 편집후기

충남의 얼을 찾고 충남정신을 규명한 책자는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 책들은 대개 학술적 연구 자료로, 일반인들이 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이 책자는 충남정신을 발양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개도 100주년을 맞아, 도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 개념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전문학자의 저술이 아니므로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혹시 어떤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충남정신의 발양을 위한 실천덕목은 본 내용 이외에도 더 좋은 덕목이 많이 있으리라고 본다.

충남을 빛낸 명인들 편도 더 훌륭한 분들이 누락됐을 수 있다.

책자의 성격상 보다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충남의 얼과 맥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
이라도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편집자)

참고문헌

- 충청남도지(1979, 충청남도, 오광인쇄사)
- 충남의 맥락(1983, 충청남도, 명문사)
- 충남정신의 뿌리와 실체(1989, 현대사회문제연구소, 세종문화사)
- 참되게 사는길(1990,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동양문화인쇄사)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삼화인쇄(주))
- 백제의 종교와 사상(1994, 충청남도, 세종문화사)
- 백제의 역사(1995, 충청남도, 대문사)

충남의 얼과 맥

발행일 : 2004년 2월

발행인 : 충청남도지사

편집인 : 충청남도 도의새마을과
(042) 251-2241

인 쇄 : 충남문화사(042)222-2561

CHUNG CHEONG NAM - DO



"AM014449"